

전통의 관성이 거대한 나라, 중국의 이해

스펜스 《천안문》, 이스트만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황희경 · 성균관대 강사 · 중국현대철학

천안문은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장의 단장 공사를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개혁 개방 이후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 89년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던 그 광장은, 얼마 전에 가보니 모두 파헤쳐져 있었다. 새삼스럽게 웬 공사인지. 그러나 천안문만은 여전히 중국인의 절망과 희망, 전통과 현대, 국가권력과 민중의 경계선의 한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다.

《천안문》의 상징성에 주목

《천안문》(정영무 옮김, 이산)은 조너선 D. 스펜스가 천안문이 갖는 이러한 상징성에 주목한다. 캉유웨이·루쉰 그리고 덩링의 삶을 날줄로 하고 량치차오·쉬즈모·원이 뒤·취추바이·선종원·라오서 등 여러 지식인 혹은 문인의 삶을 씨줄로 하여 고난에 찬 중국현대사를 마치 한편의 소설이나 '영화처럼' 아주 생생하게 소개한 저작이다.

덩링을 제외한다면 모두 최근 중국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쟁쟁한 인물들이다. 굳이 '영화처럼'이라고 말한 것은 이 책에 소개된 빛바랜 희귀한 사진들 때문인데 중국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햇빛 쏟아지는 날들' 같이 찬란하면서도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들 사진자료 덕분에 중국의 현대사를 마치 '영화처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지금부터 6년 전에 1년간의 중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처음 읽었는데(이 책은 녹두 출판사에서 1985년에 번역 출판됐다 절판됐다) 신선한 감각과 유려한 필치에 반해 정말 단꿈을 꾸듯이 단숨에 읽은 기억이 새롭다. 한편으로는 문헌이 종결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우리로서는 구할 수 없는 수많은 자료를 섭렵할 수 있었다는 데에 낙담하면서.

저자는 1981년 출판 당시에 쓴 서문에서 중국혁명의 성격에 대해 "(이들) 단일한 시각으로 포착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되레 우리는 몇 갈래의 이념과 추구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이념은 얻기도 훨씬 전에 사라졌고, 어떤 이념은 거의 도달 직전에 실패했으며, 어떤 것은 무상하게 또는 변형된 채로 얻어지기도 했다"고 조심스럽게 서술하면서 자신의 책을 중국혁명사를

스펜스의 《천안문》은 고난에 찬

중국현대사를 마치 한편의 소설이나

영화처럼 생생하게 소개한 저작이다.

이 책이 지식인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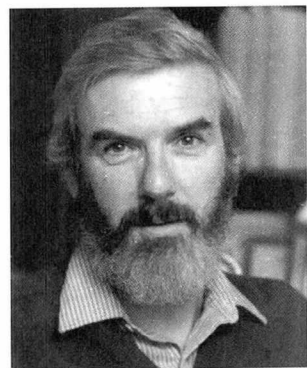
지난 백년간의 중국혁명을

서술했다면, 이스트만의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는

4세기에 걸친 근대 시기의

사회 경제사를 추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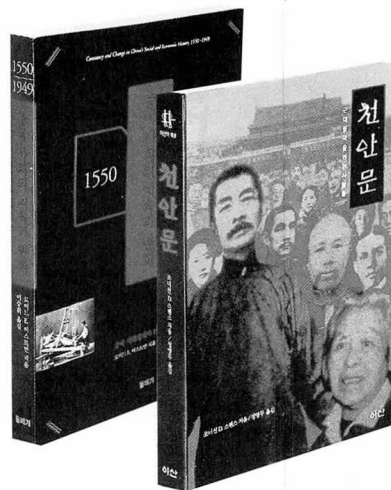


조너선 D. 스펜스(1936-)는 예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중국황제 : 강희제의 자화상》(1974), 《왕여인의 죽음》(1978), 《현대중국을 찾아서》(1990) 등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점철했던 "폭력과 소생의 틈바구니에 끼었던 중국 남녀에 관한 이야기"라고 다소 소극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 씌어진 한국판 서문에서는 "중국혁명을 절대로 단순한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혁명은 동시에 민족주의·실용주의·개인주의 혁명이었으며 과학적이고 낭만적인 혁명이었으며, 때로는 여성해방의 혁명이었다"고 아주 분명하고도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미묘한 태도의 변화는 아마도 그 이후의 중국의 역사적 전개나 학술계 동향에 힘입은 바 크리라고 생각된다.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혁명사관에서 탈피하여 문화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현대사에 대한 반성을 점차



청대로 소급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한편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공생이나 사유재산제가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국혁명의 복잡하고 풍부한 내용에 주목한 스펜스의 안목은 상당히 선구적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다만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전후 시기에 집필된 관계로 좀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진 여러가지 학술적 성과를 포괄할 수 없는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다. 가장 아쉬운 것은 후스(胡適)를 다루지 않은 점이다. 아무튼 이 책의 커다란 특색은 문학작품, 특히 시를 역사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감히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저자는 문학과 인간 삶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하여 역사 서술의 새로운 글쓰기의 기풍을 창조한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참고로 밝히면 이 책은 최근 중국어로 번역됐다.

사회 경제사의 추적과 해부

《천안문》이 그래도 글을 남긴 지식인 중심으로 지난 백년간의 중국혁명을 서술한 것이었다면 로이드 E. 이스트만의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이승휘 옮김, 돌베개)는 1550년에서 1949년이라는 4세기에 걸친 긴 시기의 사회 경제사를 추적 개괄한 저작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구·농업·상업·수공업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과 개인, 민간신앙, 근대 전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 계층 심지어 비밀결사나 비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모든 것은 변하면서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중국사회를 해부하고 있다.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른바 교과서식의 표피적 지식과 전문 연구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성과를 수용하는 동시에 다소 폭넓은 일반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읽는 방식에 따라 중국근대사에 관한 흥미로운 개설서로서 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서로도 기능할 수 장점이 있다. 사실 그동안 아주 소수의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면 1905년 과거제도의 폐지로 전통적 신사층은 사라졌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왕조는 무너졌다. 신문화운동으로 공자의 사상은 타도됐다는 식으로 너무 '변화'의 측면에 주목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일찍이 노신이 같았듯이 중국은 탁자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할 정도로 전통의 관성이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속'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의 두 배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와 수천 살에 달하는 '나이'를 가진 중국의 '굳든' 모습! 그래야 비로소 작은 변화가 갖는 의미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두 책은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에 공들여 번역 소개됐지만 다루고 있는 시기가 약간 중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양자 사이에 그다지 관련은 없다. 다만 함께 읽는다면 중국의 근·현대사를 좀더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

《천안문》

조너선 D. 스펜스 지음/정영무 옮김
이산/A5신/464면/15,000원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로이드 E. 이스트만 지음/이승휘 옮김
돌베개/A5신/368면/12,000원